

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4. 16(화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대광위 광역버스과	담당자	·과장 박문수, 사무관 김종복, 주무관 박미희 ·☎ (044) 201-5065, 5067, 506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송도~여의도, 송도~잠실 M버스 운행중단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이 없습니다.

- 송도~여의도, 송도~잠실 M버스 노선의 운송사업자였던 이삼화관광은 상시근로자가 80명 규모로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될 예정이며,
 - *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
- 이삼화관광은 수요 부족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인해 동 M버스 노선에 대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, SBS, 4.16) >

- 주 52시간 부담 인천~서울 광역버스 운행 중단 속출(한국경제)
 - 천지교통, 노선 반납...송도~서울 M버스는 오늘 폐쇄
- 'M버스' 운행 중단도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고요?
 - 송도~여의도·잠실 M버스 노선 폐선 원인 '주 52시간 근무제 도입'으로 알려졌다으나, 적자 누적으로 폐선 결정한 것으로 주 52시간과 무관